인문연구 제96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6, No. 1, pp.53~77
http://dx.doi.org/10.21211/JHUM.96.3

좀비(화)의 폭력 드러내기:

조이스 캐럴 오츠의 『좀비』*

강영아**

〈차 례〉

1. 들어가며
2. 제도적 폭력
3. 폭력의 외면화
4.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국 작가 조이스 캐럴 오츠의 『좀비』가 타자의 은유인 '좀비'를 통해 미국 사회의 폭력을 폭로하는 텍스트임을 분석하고자 한다. '밀워키의 살인마'로 불리는 다머의 실화가 바탕이 된 『좀비』는 유색인 이주자를 좀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백인 화자의 욕망을 통해 미국 사회의 불안과 폭력을 극단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좀비는 서구 중심의 인종적·계급적 타자의 정형화를 체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2795)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시간강사

하는 존재로 서구가 만든 상상물이다. 오츠는 타자의 은유이자 내적 손상을 드러내는 좀비를 통해 인종적 타자에 대한 제도적 폭력을 가시화하는 글쓰기를 실천한다. 『좀비』는 백인 화자가 뇌엽 제거술을 모방해 유색인 청년을 좀비로 만들려다 잔혹하게 살해한다. 오츠는 한때 미국의 의료기관이 환자를 통제하던 수단인 외과 수술을 전유하여 사회제도의 폭력을 가시화한다. 게다가 화자가 유색인 이주자들을 좀비로 만드는 가학적인 좀비화를 통해 오츠는 인종적 타자에 대한 폭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오츠는 『좀비』에서 백인 화자의 좀비 만들기와 유색인 이주자의 육체적 훼손을 시각화하는 글쓰기로 타자화의 폭력을 외면화하는 서사 전략을 모색한다.

주제어: 조이스 캐럴 오츠, 좀비, 좀비화, 제도적 폭력, 타자화, 폭력의 외면화

1. 들어가며

오늘날 영화 속의 무리 지어 사람들의 육신을 쫓는 '좀비'는 사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공포의 대상이기에 괴물이자 가해자로 묘사된다. 반면 이러한 좀비의 기원인 아이티 제도의 '좀비'는 사실상 괴물이나 가해자와 거리가 먼 존재였다. 좀비는 아이티 제도의 신앙인 부두교의 주술사에 의해 죽은 자로 매장되었다가 이후 기계처럼 일만 하는 노예로 전락한 희생자이다. 아이티 제도에서 좀비가 희생자로 여겨졌든 반면에 서구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도륙하는 가해자로 묘사된다. 반면 중요한 것은 좀비가 아이티 제도에서 희생자가 되든 서구 영화에서 가해자가 되든 변함없이 '그들' 혹은 '타자'를 상징한다는 점이다. 카일 비숍(Kyle Bishop)

은 영화 속 좀비만큼 서구의 식민주의적 헤게모니를 잘 폭로하는 존재도 없을 거라고 본다.[2] 21세기의 좀비는 서방 국가로 몰려드는 비서구 이민자나 실향민에 대한 서구인들의 혐오와 공포를 체화하는 존재로 여겨진다. 좀비가 전통적인 괴물 존재와 구분되는 지점은 희생자와 가해자, 그리고 계급적 타자와 인종적 타자를 동시에 물질적으로 형상화한다는 점이다.

미국 사회의 폭력을 조명하는 글쓰기로 널리 알려진 조이스 캐럴 오츠(Joyce Carol Oats)는 폭력을 시각화하는 서사 장치로 좀비를 전유하였다. 오츠는 『좀비』(*Zombie*, 1995)에서 백인 화자의 좀비 욕망을 통해 유색인 이주자들을 사회적 위협이자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억압하는 사회 제도적 폭력을 극단적으로 재현한다. 오츠의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3]로 불릴 만큼 미국 사회의 현안들을 반영하고 있다. 오츠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글쓰기의 핵심이 폭력이 희생자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고 밝히는 것임을 강조한다.[4] 오츠는 고통, 박해, 굴욕감, 가부장적 문화의 경험을 증언하는 것을 작가의 의무로 여기는 만큼, 그녀의 문학 역시 미국의 가정 폭력, 인종 차별, 노동 계급의 좌절과 살인과 같은 다양한 폭력을 다루고 있다.

『좀비』는 이전 작품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미국 사회의 폭력을 재현하는 텍스트이다. 오츠는 『좀비』에서 '밀워키의 식인귀'(The Milwaukee Cannibal-Murderer)로 알려진 제프리 다머(Jeffery Dahmer)의 실화를 소재로 삼았다. 그로 인해 텍스트에 대한 비평적 관심이 다머의 화신이라 할 수 있는 백인 화자인 쿠엔틴(Quentin,

---

2) Kyle Bishop, "The Sub-Subaltern Monster: Imperialist Hegemony and the Cinematic Voodoo Zombie,"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31-2, 2008, p. 143.

3) Jay Parini, "A Taste of Joyce Carol Oates," *Joyce Carol Oates: Conversations 1970-2006.* Ed. Greg Johnson. Princeton; Ontario Review, 2006, p. 125.

4) Ibid., p. 127.

Q_P_)에게 집중되고 있다. 『좀비』의 형식적 특징인 비소설적인 구조와 '포스트모던적 재현 방식' 역시 연쇄 살인마의 정신세계를 탐색하는 오츠의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5] 게다가 화자가 갈망하는 좀비는 백인 가해자와 유색인 희생자 간의 이분법적 대립을 해체하는 수사학이나 화자의 정신 분열증적인 주체성을 재현하는 보조장치로 여겨지곤 한다. 이례적으로 '좀비'를 조명하는 비평일지라도 좀비는 화자의 도착적인 섹슈얼리티를 상징하고, 화자의 자아긍정과 타자와의 동일시의 욕망을 구현하는 장치로 분석된다. 좀비는 비록 상상의 산물이지만 육신을 갈망하여 친숙하고 낭만적인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괴물이라는 점은 상징적으로 화자 쿠엔틴과 같은 살인자의 은유라 할 수 있다.[6] 미호 모리(Miho Morii) 역시 화자의 모호하고 불가해한 내면 세계가 연쇄 살인마 다머를 이해하거나 재현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7] 하지만 『좀비』 이후에 출간한 비평서 『나는 어디에 있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모리가 주장하는 '다머의 본성'이나 '범죄 속성'은 오츠의 관심사가 아니다. 오츠는 대중 매체나 비평가들처럼 다머를 단순히 살인에 중독된 괴짜나 괴물 혹은 이방인으로만 해석하지 않는다.[8]

오츠는 다머의 이야기를 소재로 삼지만 『좀비』에서 사회 구성원 간의 폭력이 사적 보복이 아닌 사회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음을 강

---

5) Steven Marcus, "American Psycho,"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8 October, 1995, p. 13.

6) Fiorenzo Iuliano, "Not Dead Enough to be (an) Other. Joyce Carol Oates's Zombies Between History and Fiction," *Otherness: Essays and Studies* 3-2, 201, p. 2.

7) Miho Morii, "The Truth of the Representation of Jeffrey Dahmer: Joyce Carol Oates's *Zombie,*" p. 96.

8) Joyce Carol Oates, *Where I've Been, and Where I'm Going: Essays, Reviews, and Prose,* Plume Books, 1999, p. 233.

조한다. 『좀비』는 사적 폭력이 축적되어 사회적 폭력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문제 때문에 구성원 간의 사적 폭력이 재생산되고 확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목과 달리 『좀비』에 좀비는 없다. 백인 화자가 뇌를 손상시켜 유색인 청년을 노예같은 좀비로 만들려는 가학적인 좀비화(zombification)의 과정이 계속될 뿐이다. 본 논문은 오츠의 『좀비』가 사적 복수에 가려져 있는 유색인 타자에 대한 사회 제도적 폭력을 탐색하는 텍스트임을 조명할 것이다. 우선 화자가 좀비 노예를 욕망하는 것이 함의하는 바와 좀비화의 도구가 되는 "뇌엽 절제술"(leucotomy)(40)[9]은 폭력의 사회적 속성을 즉, 폭력을 사회 제도적 문제와 결부된 것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좀비』에서 두드러지는 좀비를 만들기 위한 신체 훼손은 인종적·계급적 타자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제도적 폭력을 시각화하는 재현방식이라 할 수 있다.

2. 제도적 폭력

오츠가 『좀비』에서 폭력을 시각화하는 방식은 미국 사회에 뿌리내린 인종차별주의를 표면으로 끌어올리는 실천과 다르지 않다. 오츠와 동시대 비평가인 이브 미쇼(Yves Michaud)는 폭력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사회에 대한 분석틀이 될 수 있다는 급진적 주장으로 폭력을 재현하는 문학의 힘을 강조했다. 미쇼는 『폭력과 정치』(*Violence and Politics*, 1990)에서 폭력이 다양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이전에 명시하지 못했던 사회적 현상을 시각화하는 데 유용한 도구라고 주장한다.[10] 오츠가 개인의 폭력

9) 앞으로 『좀비』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10) 이브 미쇼, 『폭력과 정치』, 나정원 옮김. 서울: 인간사랑, 1990, p. 9.

속에 도사리고 있는 제도적 폭력을 가시화하는 방식 역시 미쇼가 제안한 폭력을 확대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폭력에 대한 해석의 확장을 의미하는 '폭력의 다의성'은 독자들에게 인식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 결과 폭력의 성격마저 바꾸게 된다.[11] 그런 점에서 『좀비』를 관통하는 극단적인 폭력 재현은 미국 사회의 인종적 타자에 대한 폭력의 확대경이자 폭력을 통해 폭력을 분석하는 오츠만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좀비』는 개인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전유하여 사적 폭력의 시발점으로 사회적 폭력을 다루고 있다. 이는 폭력을 힘과 구분하는 대신 힘의 일종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폭력의 메커니즘을 드러나게 한다. 미쇼는 그라함(H.D. Graham)과 거(T.R. Gurr)가 일찍이 제기했던 힘의 도구로서 폭력의 본질에 주목한다. 힘은 위협을 포함해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폭력 행사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미쇼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나 지배하는데 폭력이 이용된다면 이는 힘의 작용에 해당한다.[12] 이를 참고하면, 우리는 폭력을 그저 제거해야 할 부정적인 힘의 행사가 아닌 폭력이 가진 생산적인 힘을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이다. 오츠 역시 『좀비』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무수한 폭력들이 사실은 사회 시스템에서 파생된 힘의 작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좀비』의 화자 쿠엔틴은 스스로를 "전형적인 백인"(4)으로 주장하는 중산층 출신의 31세 미혼남이다. 쿠엔틴은 데일 카운티 공과대의 시간제 학생의 신분임을 내세워 대학교수인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어 사는 처지에 있다. 그는 성조기를 단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외지 출신의 건장한 유색인 청년들을 차례대로 납치해 감금하고 고문한다. 그는 임대 건물의 지하실 욕조 안에서 사

11) Ibid., pp. 9-14.
12) Ibid., p. 13.

지가 묶인 유색인 청년의 뇌를 손상시켜서 좀비를 만들려고 시도하다 죽이기를 반복한다. 화자가 좀비를 욕망하는 계기는 거리에서 십대 흑인들에게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쿠엔틴이 "흰둥이"(whitey)(59)에 대한 "검둥이 무리"(a nigger gang)의 공격으로 단정 짓는 이 사건은 백인 시민과 유색인 이주자 간의 불화를 암시한다. 쿠엔틴은 자신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할 노예가 되어줄 "나의 좀비"(MY ZOMBIE)(26)를 갖는데 집착하기 시작한다. 쿠엔틴이 유색인 청년들을 좀비의 표본으로 삼는 것은 거리 폭력에 대한 사적 복수처럼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쿠엔틴이 문제적 외과술인 "전두엽 절제술"(LOBOTOMY)(28)을 이용해 청년들을 차례대로 죽이는 것은 그의 폭력이 미국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쿠엔틴이 1950년대까지 미국에서 성행했던 뇌엽 절제술을 전유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이 수술은 미국의 의료기관이 정신 질환자를 통제하는 도구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뇌엽 절제술을 받은 많은 환자들이 '좀비'처럼 무력해지거나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렸다.[13] 인간성을 박탈하는 부작용이 잇달아 보고되자 마침내 194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뇌엽 절제술은 금지되었다. 반면 쿠엔틴이 대학 도서관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월트 프리먼 박사(Dr. Walter Freeman)와 제임스 W. 와츠 박사(Dr. James W. Watts)가 1942년에 쓴 『정신외과학』(Psychosurgery)를 찾은 것을 두고 "인생의 전환점"(42)으로 여긴다. "뇌엽 절제술"(leucotomy, leuco는 그리스어로 하얗다의 의

13) 노베르트 바그너(Norbert Wiener)는 20세기 초의 전두엽 절제술이 많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음을 지적한다. 전두엽 절제술이 미국에서 특히 성행할 수 있었던 것은 수술이 정신병원 운영관리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Norbert Wiener,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Cambridge: MIT press, 2019. 참조

미)(40)은 “인간 뇌의 좌우 전두엽에서 흰 물질을 파괴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정신외과 시술이다. 쿠엔틴은 『정신외과학의 원리』(Principles of Psychosurgery)의 저자가 얼음 송곳 한 개로‘하루 서른 명의 환자’를 수술했다는 데 매료된다. 그는 뇌엽 절제술이 “좀비를 실현시켜 줄 것”(MATERIALIZING the ZOMBIE)(42)으로 확신하고 실행에 옮긴다.

> 뇌엽 절제용 메스 혹은 ‘얼음 송곳’을 작은 채를 이용해서 안구 위쪽의 뼈를 통과시킨다. 그 후에 뇌엽 절제용 메스의 손잡이를 돌려서 칼날 끝으로 전두엽 밑부분의 조직을 파괴한다. … 안구에서 떨어진 부위에서 경안 뇌엽 절제용 메스의 끝을 결막낭에 넣는다. 피부나 속눈썹을 건드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메스의 끝을 안와 뼈에 닿게 한다. 테이블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채, 메스가 콧날과 평행을 이루며 신체의 중앙선을 향하도록 겨눈다. 5센티 눈금에 이르렀을 때 수술도구의 손잡이를 안와 테두리가 허용하는 데까지 옆으로 당기고 전두엽 밑부분 조직을 잘라낸다. (41-42)

뇌엽 절제술은 뇌 신경로를 절제해 환자를 ‘잠잠하게’ 만들어 ‘감정, 동요, 강박적 정신지각과 물리적 행동을 감소시키는 게’ 주된 목적으로 의료 기관이 환자들을 통제하는 도구였을 뿐이다. 쿠엔틴이 대학 도서관에서 발견하는 의학 서적들은 1940년대와 50년대에 미국에서 ‘수천 건’ 이상 절제술이 성행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폭로한다. 쿠엔틴이 이용하는 뇌엽 절제술은 개개인의 삶을 통제하는 사회 제도적 폭력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백인 화자의 시각을 통해 미국의 사법 제도 또한 인종적, 계급적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쿠엔틴이 목격하는 수감자 “91퍼센트가 흑인이나 남미인”(8)이고 백인과 흑인이 구분되어 수용되는 구치소의 상황은 유색인들이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례로 쿠엔틴이 12세 유색인

미성년자를 추행해 기소된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들이 얼마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를 보여준다. 대학교수인 쿠엔틴의 아버지와 같은 라이온스 클럽 소속 백인 판사는 이 사건을 "순진한 백인 청년이 한 실수"(87)로 치부하고 쿠엔틴에게 터무니없이 가벼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는 "흑인이나 여성 판사가 판결했었다면, 상황이 정말 곤란해졌을 겁니다"고 안도한다. 판결이 유색인이고 게다가 생활보호 대상인 편모 가정 출신인 피해자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처음부터 이 사건이 어찌 될지는 너무 뻔했다"(88)는 쿠엔틴의 냉소적인 독백 역시 미국의 사법 제도가 인종주의와 자본주의 논리에 입각해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편 화자 쿠엔틴 또한 사회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쿠엔틴은 유년시절부터 "눈 맞춤"(EYE CONTACT)(4)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게다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탓에 항상 미시건 교정국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격주로 아버지가 지정해 놓은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그는 교정국 보호 관찰관의 검열하는 눈, 정신과 의사의 안경 너머 분석하는 눈, 특히 아버지의 "꿰뚫어 보는 눈"(EYE PENETRATING)(30)을 자신을 "심판하고 있는"(passing judgement)것으로 여긴다. 쿠엔틴에게 '눈'은 가부장적인 가정, 학교, 법원, 병원 같은 사회제도의 응시인 것이다. 결국 개개인의 삶을 검열하고 규제하는 미국 사회시스템을 의미한다. 반면 좀비의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은 일방적인 시스템의 응시와 큰 대비를 이룬다. 쿠엔틴은 좀비의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하는"(49) 눈에 매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쿠엔틴이 유색인 청년들을 좀비노예에 적합한 대상으로 여기고 희생시키는 것은 유색인 이주자들을 백인을 결코 심판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본다는 것을 반영한다.

쿠엔틴은 납치한 유색인 청년들의 뇌에서 전두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좀비로 만들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쿠엔틴은 매번 청년들

의 눈을 손상시켜서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다. 쿠엔틴이 유색인 청년을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좀비로 삼기 위해 그들의 눈을 훼손시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검붉은 자두빛의 피부를 나는 혀로 핥고 갉아먹고 싶어 미칠 것만 같았다. … 하지만 내가 송곳으로 찌른 왼쪽 눈이 아예 감겨 버렸고, 오른쪽 눈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눈이 아니었던 것처럼 눈 뒤쪽으로 넘어가 버렸다. (55)

다른 감각들보다 시각을 우월시하는 서구 문화의 시각 중심주의를 고려할 때 좀비의 '보지 못하는' 눈은 열등한 존재를 가리킨다. 서구 문명에서 보는 행위(seeing)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이성적 존재임을 비준하는 아는 것(knowing)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폭력의 외면화

1990년대부터 미국 극장가에서 좀비 영화가 대중적인 관심을 얻었던 것을 감안할 때 화자는 친구들과 종종 어울렸던 십대에 영화에서 좀비 개념을 얻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쿠엔틴은 유색인이 좀비에 적합하다고 믿는다. 쿠엔틴의 관점은 식민지였던 아이티 제도의 유색인들을 좀비와 같이 열등한 존재로 정형화했던 서구의 식민주의 시각을 연상시킨다. 쿠엔틴이 좀비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주술사와 노예 간의 주종 관계이다. 쿠엔틴은 좀비를, "진짜 좀비"(a true ZOMBIE)(49) "나의 것"(mine) "내 좀비"(MY ZOMBIE) 를 욕망한다. 그는 좀비를 '그 어떤 명령'이나 '변덕'에 주인에게 '복종'하는 노예로 정의한다(49). 외지에서 온 흑인 청년을 "타고난 좀비"(a natural zombie)(46)로 정의한다.

> 내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변덕을 부릴지라도 그는 복종할 거야. "네, 주인님" "알겠습니다, 주인님" 하면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나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대답하겠지 "사랑합니다. 주인님, 오직 주인님뿐입니다."
>
> 분명 그렇게 할 테고, 당연히 그런 존재일 거야. 진짜 좀비는 결코 '아니요'라고 못하고, 그저 '네'라고 해야지. 맑게 두 눈을 뜨고 있지만 눈 안쪽에선 아무것도 내다보지 못할 거고, 그 안에선 다른 생각 따위는 할 수도 없을 거야. 어떠한 심판도 하지 않을 거야. (49)

쿠엔틴은 유색인 청년이 저항할 때마다 불같이 화를 내며 "누가 네 주인이지?"(152)라며 자신과 그들이 주종의 관계임을 재차 강조한다. '관리인'(CARETAKER)인 쿠엔틴이 모든 유색인 세입자의 방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Master key)(11)를 과시하는 것은 흑인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백인 주인을 연상시킨다. 서구 영화에서 좀비는 인종적 타자 외에도 경제나 노동과 관련된 계급적 타자를 구현하는 존재이다. 좀비는 존엄성이나 의미부여 없이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일만 하는 영혼 없는 껍데기이다. 그런 점에서 좀비는 노예 제도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기록된 존재로 볼 수 있다.[14] 쿠엔틴이 유색인 이주자를 타고난 노예로 간주하는 시각은 당시 좀비 영화가 유색인을 자의식이나 자율성이 결여된 존재로 인식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짐작케 한다.

서구의 좀비 영화는 아이티 제도의 원주민들을 '영혼 없는,' '자율 의지가 없는' 노예처럼 부정적으로 정형화하여 서구 제국주의 패러다임을 선전한다.[15] 반면에 아이티 제도의 토착어인 크레올(Creole)어로 좀비는 '영혼' 혹은 '돌아온 사람'(revenant)을 가리킨다. 『좀비』가 출간된 1990년대는 미국을 위시해 전 세계적으로 좀

14) Peter Dendle, *The Zombie Movie Encyclopedia, Vol. 2: 2000-2010,* 2012, p. 271.

15) Kyle Bishop, "The Sub-Subaltern Monster," p. 143.

비 영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시기로 2000년대 '좀비 르네상스'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늘날 국제정치계에서 좀비는 전 지구적 현안인 난민, 망명자, 불법 이민자와 같은 실향민(the displaced)에 비유되곤 한다. 존 스트라톤(Jon Stratton)은 「좀비 트러블: 좀비 텍스트, 헐벗은 생명 그리고 실향민들」("Zombie Trouble: Zombie Texts, Bare Life and Displaced People")에서 좀비의 현대적 의미를 조명한다. 그는 할리우드 영화 속 좀비를 서구의 선진 국가로 진입하려고 애쓰는 난민이나 불법 이민자의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좀비는 난민이나 실향민에 대해 서구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의식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다.[16]

『좀비』 역시 1990년대의 외국 이주자들의 유입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는 미국사회가 배경이다. 쿠엔틴은 밖에서 밀려오는 "유색인들"(Coloreds)로 인해 기존의 "백인들"(Whites)의 삶이 돌이킬 수 없이(irreversible) 변했다고 주장한다(102). 대대로 중산층 백인들의 고급 주택가가 즐비했었던 지역인 유니버시티 하이츠(the University Hights)에는 유색인 이주자들을 위한 임대용 건물과 주차타워들이 들어서고 있다(12). 쿠엔티의 아버지인 R_ P_교수 역시 오래된 빅토리아식 붉은 벽돌 주택을 임대용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다른 백인들처럼 교외로 이사를 나갔다. 백인들이 유색인 이주자들에게 갖는 혐오와 반감은 화자의 관점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쿠엔틴은 예의가 바르고 집세를 제때 내서 외국 유학생들이 "세입자로 더 낫다"는 아버지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쿠엔틴은 유색인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치부하며 백인들의 우월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미국 학생들과 유색인 유학생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

16) Jon Stratton, "Zombie Trouble: Zombie Texts, Bare Life and Displaced Peopl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4-3, 2011, p. 266.

쿠엔틴의 아버지인 R_ P_교수 역시 빅토리아식 붉은 벽돌 주택을 임대용 다세대로 개조해 세를 놓고 다른 백인들처럼 교외로 나갔다. 쿠엔틴의 시각을 통해 미국사회의 일부가 되어버린 유색인 이주자들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백인시민들의 양가적 감정이 드러낸다.

> 거무스름한 피부와 반짝거리는 검은 눈, 검은 머리는 기름을 바른 듯하다. 그들에게서 익어가는 자두 같은 냄새가 난다. 수줍어하며, 미국 학생들보다 예의가 바르고, 집세를 제때 내고, 미국 학생이었으면 눈치챘을 일들을 모른다. 또 미국 학생들처럼 방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 놓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외국 유학생이 세입자로 더 낫다고 말한다. (12).

이때 쿠엔틴의 시각은 미국의 주류 시민인 백인들이 유색인 이주자들에게 갖는 양가적 감정을 반영한다. 백인들은 미국사회의 일원이 된 유색인 이주자들을 부정할 수도 없지만 결코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쿠엔틴은 '히치하이커'나 '부랑자' '집 없이 떠도는 흑인'을 일컬어 '사회에서 쓸모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그는 타지에서 온 유색인 청년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인간"(25)으로 여겨 좀비로 삼으려 한다. 에이프릴 D 피츠(April D. Pitts)는 오츠의 『좀비』를 인종적 차이와 이상적인 민주 시민권의 문제, 인종적 소수자가 미국의 지배 문화로 동화되는 문제를 다루는 텍스트로 분석한다. 피츠에 의하면 좀비가 상징하는 '인간성의 박탈과 종속'은 인종적 소수자가 미국 사회에 수용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17]

---

17) April D. Pitts, "Ideal Objects: The Dehumanization and Consumption of Racial Minorities in Joyce Carol Oates's Zombie." *Bearing Witness: Joyce Carol Oates Studies* 3.1, 2016, p. 2.

종종 우리는 사회적 불화가 구성원 간의 격차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좀비』는 유색인 이민자에 대한 쿠엔틴의 폭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구성원간의 차이를 만들려는 욕망에서 촉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르네 지라르(René Girard)는『폭력과 성스러움』(*Violence and the Sacred*)에서 고대 공동체의 집단적 불안, 공포와 그것이 원인이 되는 집단적 폭력의 속성을 분석한다.[18] 그에 따르면 공동체의 집단적 폭력은 이후 희생양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만큼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구성원 간의 갈등과 불화는 차이가 모호해지고 교란되었을 때 촉발되는 것이다.[19]『좀비』에서 쿠엔틴이 갈망하는 좀비 또한 유색인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무수한 차이들의 결정체의 형상화로 볼 수 있다. 쿠엔틴은 유색인 세입자의 갈색 눈을 '고대의 문명인' 원숭이 눈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피가 우리의 것과 너무나 다르다"(65)고 주장한다. 그는 유색인을 환원불가능한 차이를 가진 짐승으로 분류한다. 요컨대 오츠는 좀비를 통해 '인간성이 박탈된 인종적 소수자'를 형상화한다.[20]

좀비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부두교 전설에서 좀비가 된다는 것은 주술사와 같은 타자에게 자율성을 빼앗긴 삶을 의미하기에 일종의 교훈이었다. 하지만 서구에서 좀비는 타자를 상징하고 무관

18) 지라르는 공동체의 폭력을 구성원 간의 상호 관계성에 내재된 폭력과 공동체 존속의 토대가 될 질서 회복을 위한 폭력인 '희생양화'의 폭력으로 설명한다. 이때 공동체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교환 체계의 혼란과 그로 인한 차이들의 무차별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무차별 사태는 구성원들에게 문화적 상실감이나 불안감을 초래하는데 공동체의 존속에 필수적인 차이의 생성을 위해 구성원 가운데 희생시킬 만한 존재를 희생양으로 삼는다. René Girard, *Violence and the Sacred.* Tans. Patrick Greg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7, pp. 13-14.

19) 최성희,「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호모 사케르』」.『새한영어영문학』52-3, 2010. 참조

20) April D. Pitts, "Ideal Objects," p. 6.

심, 익명성, 상실의 기표로 작용한다.[21] 쿠엔틴이 정의하는 좀비 역시 미국 사회에서 인종적 타자로서 유색인 이주자가 직면하는 인식적 폭력을 형상화한다. 쿠엔틴은 유색인 청년을 좀비로 "타고난 속성"(72)이 있는 "좀비에 딱 맞는 표본"(44)으로 간주한다. 특히 그가 지적 장애가 있는 흑인 소년을 "타고난 좀비"(46)라고 보는 것은 이 사회에서 유색인 장애인이 이중적 타자임을 시사한다. 쿠엔틴은 유색인 청년들의 사체를 차례대로 인적 드문 호수에 버린다. 쿠엔틴은 유색인 청년들의 희생을 이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무관심과 결부시킨다.

> 토끼 장갑이 사라진 지 12일이 지났는데도 마운트 버넌 인콰이어러 지역이나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왜 있겠는가? 디트로이트부터 몬타나까지 둘러봐도 전혀 없다 … 일 년에 그런 실종자만도 수백, 수천 명이 될 테니까. 공중의 참새처럼 그들은 제 날개로 날아오르지만 퍼덕이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흔적도 없이 검은 물이 그들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을 거다. (30-31)

쿠엔틴의 시각을 통해 연쇄적인 유색인의 실종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중산층 출신의 백인 소년이 실종되었을 때 오랫동안 미국 전역에서 방영되어 이슈화되는 것과 병치되고 있다. 유색인 이주자들은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지만, 위험에 처했을 때 국가 시스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좀비는 아니지만 좀비와 다를 바 없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사회에서 '좀비'가 되는 것은 사회적 죽음을 체화하기에 아감벤의 '헐벗은 생명'에 비유할 수 있다. 안토니 다우니(Antony Downey)는 사회, 정치, 문화, 경

---

21) Joan Dayan, *Haiti, History, and the God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5, p. 37.

제, 지리적 경계선상의 존재인 실종자, 난민, 정치적 수용자, 고문 희생자, 추방자들 모두는 '헐벗은 생명'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떠한 위협에도 국가를 상대로 보호를 요청할 수도 없고, 국가에 의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22]

좀비는 허구적 존재이며 서구의 산물이다. 좀비를 수식하는 특유의 형상인 '살아있는 시체' '몸이 썩어들어가는' '영혼 없는 눈' '걸어다니는 시체'는 서구의 방식으로 아이티 제도의 원주민을 정형화한 것이다. 아이티 제도에서 좀비는 부두교 주술사의 계략으로 죽은 것처럼 매장되었다가 이후 무덤에서 꺼내져서 노예처럼 착취당한 희생자였다. 좀비 이야기는 서구인의 시각에서 다시 쓰였고, 초기 좀비 영화에 영감을 주었다. 윌리엄 시브룩(William B. Seabrook)의 『마법의 섬』(*The Magic Island,* 1929)은 아이티 제도의 부두교와 좀비의 서사를 맨 처음 서구에 소개했는데, 좀비를 기계나 가축처럼 일만 하는 우둔한 노역자로 묘사했다.[23] 좀비 연구가인 비숍은 영화 속 좀비야말로 서구의 인종적, 정치적, 문화적 헤게모니를 몸으로 폭로하는 존재라고 주장한다. 좀비 영화의 시원이 된 『화이트 좀비』(*The White Zombie*, 1932) 이후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Night of the Living Dead,* 1968)과 같은 좀비 영화는 부두교 주술사의 노예로 전락한 좀비의 서사에서 특히 지배와 복종의 극단적 관계를 부각시켰다. 당시 서구의 관객들은 좀비 자체가 아닌 그들 역시 식민지의 이교도 원주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24]

한편 영화 속 자율 의지가 없는 노예 상태의 좀비는 당시 국제정치계가 상상했던 아이티 제도의 이교도 원주민에 대한 '시각적 리얼리티'를 주었다.[25] 비숍의 지적처럼 좀비에게 투사된 부정적

22) Jon Stratton, "Zombie Trouble," p. 267.
23) Kyle Bishop, "The Sub-Subaltern Monster," p. 143.
24) Ibid., p. 141.

속성들은 서구의 식민주의 체계와 결부되어 있다. 좀비는 서구의 식민주의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서구의 우월성을 비준하는 피식민지인의 자연, 비이성, 동물, 열등함, 미개함을 체화하는 존재이다. 시부룩의 저서에서 서구 독자를 사로잡았던 것이 "좀비의 스펙타클"(the spectacle of zombies)[26]이었듯이, 오츠는 『좀비』에서 폭력적인 좀비 만들기를 통해 인종적 타자에 대한 사회적 폭력을 재현하는 힘을 찾았다. 백인 화자 쿠엔틴이 유색인 청년들을 좀비 노예로 만드는 과정은 납치, 성폭행, 감금, 고문과 같은 잔혹한 육체적 훼손을 수반한다. 뇌를 손상시켜 유색인을 노예로 만들려는 좀비화는 인종적 타자에 대한 미국 사회의 폭력을 가시화한다.

『좀비』에서 유색인 청년들의 육체 훼손을 묘사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노골적이라 포르노그래피적이다. 영화 이론가인 린다 윌리엄즈(Linda Williams)는 차라리 노골적으로 육체의 물질성을 다루는 아마추어 포르노그래피가 현실을 재현하는 힘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하드코어적 포르노그래피는 미학적 포르노보다 더 분명하게 육체를 고깃덩이나 돈과 결부하고 하드코어적으로 보여주기에 관객들이 폭력에 대한 리얼리티의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27]

> 아마추어 사도마조히즘과 단일한 사디-맥스 넘버 사도마조히즘 모두가 관객들의 마음속에 장르 한편에 "고깃덩이"와 "돈"이 있는 것처럼 "하드코어" 같은 폭력의 리얼리티의 인상을 심어 주려고 한다. 그러므로 영화 속의 폭력은 슬래셔 공포물의 특수 효과와 상당히 대립

25) Jerry Philogene, ""Dead Citizen" and the Abject Nation: Social Death, Haiti, and the Strategic Power of the Image," *Journal of Haitian Studies* 21-1, 2015, p. 105.

26) Kyle Bishop, "The Sub-Subaltern Monster," p. 143.

27) Linda Williams, *Hard Core: Power, Pleasure, and the "Frenzy of the Visible"*,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86. p. 201.

> 되는 효과를 가진다. …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폭력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한다.[28]

백인 쿠엔틴에게 유색인 이주자들은 미국 사회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이다. 화자가 고분고분한 노예를 욕망해 좀비를 추구하는 것은 백인과 유색인 이주자 간에 '차이'를 만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유색인 좀비를 만드는 폭력적인 좀비화에서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이 인종적 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진지한 통찰을 엿볼 수 있다. 오츠는 타자의 은유인 좀비를 전유해 폭력을 다루면서 보이지 않는 백인 시민의 불안과 유색인에 대한 인식적 폭력을 조명한다. 즉, 오츠의 이 접근법은 좀비가 가진 "내면의 적의 육체성을 드러내는"[29] 잠재력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다.

오늘날 영화 속 좀비는 생물학적 감염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지만 오로지 인간의 육신을 탐하는 본능만 남아있는 시체로 묘사된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좀비를 현대 사회가 직면한 국제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철학적 위기와 위협에 비유하곤 한다. 좀비를 서방 국가로 이동하는 실향민들에 비유하듯이 좀비를 오늘날 전 세계가 경험하는 팬데믹에 비유하는 이들도 있다. 조안 베런(Joanna Verran)과 엑시버 알다나 리스(Xavier Aldana Reyes)는 병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좀비는 전염성 질병의 '알레고리'이자 '전염병의 은유'라고 주장한다. 즉, 좀비는 감염성을 지닌 병원체(pathogen)의 은유이면서 동시에 병원체 체현하는 존재이다.[30] 좀비에 대한 이들의 병리학적 접근법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손상을 가시화하는 좀비의 잠재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비』를 관

---

28) Ibid., p. 201

29) 후지타 나오야, 『좀비 사회학 :현대인은 왜 좀비가 되었는가』, 선정우 옮김. 서울: 요다, 2018, p. 80.

30) Joanna Verran and Xavier Aldana Reyes. "Emerging Infectious Literatures and the Zombie Condition," pp. 1-2.

통하는 좀비화의 극단적 폭력 역시 사회 제도적 폭력에 대한 외면화로 분석할 수 있다. 오츠는 유색인 청년의 육체 훼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타자에 대한 제도적·인식적 폭력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좀비』에서 유색인 청년들이 좀비와 결부되는 것은 이들에게 닥칠 운명이기도 한 '죽은 시민'에 비유할 수 있다. 사회적, 정치적으로 죽은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국가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권을 빼앗긴 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31] 쿠엔틴은 의학 서적에 찢어온 뇌엽 절제술 설명서를 참고해 유색인 청년의 전두엽을 손상시켜 좀비로 만들려고 한다. 쿠엔틴은 "나는 사디스트도 고문하는 사람도 아니야"(81)라고 주장하지만, 그는 "경안 뇌엽 절제술"(Transorbital lobotomy procedure)(41)로 무고한 유색인 청년들에게 엄청난 공포와 고통을 주는 가학적인 고문관과 다를 바가 없다. 쿠엔틴은 유색인 청년을 좀비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마취도 없이 안구 위쪽을 얼음 송곳으로 찔러댄다.

> 의사들이 뇌엽 절제술을 할 때는 전기 충격을 가해 먼저 환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겠지만 나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었다. 이름 없는 것과 나 둘 다 감전될 수도 있어서 … 프리먼 박사의 그림 대로, 기구로 머리를 고정시켜 놓고 뼈가 잡히는 안와에 송곳을 찔러 넣자 이름 없는 게 미친듯이 버둥대면서 입 안에 스펀지를 문 채 비명을 질러댔다. 나는 피가 솟구치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잠시 통제력을 잃어버렸다. … 망할 얼음 송곳이 손잡이 부분까지 이름 없는 것의 눈을 지나 뇌까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죽어가고 있다. 그가 코피를 엄청나게 쏟아 내더니 죽어 버렸다. 또 일을 망쳐서 좀비를 만들지 못했다. (82)

쿠엔틴은 좀비 노예로 만들려는 유색인 청년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25)으로 규정하고 그의 주체성을 부정한다. 쿠엔틴

31) Jerry Philogene, ""Dead Citizen" and the Abject Nation," p. 114.

은 유색인 청년들의 뇌를 훼손해 좀비로 만들기 전에 그들의 고유한 이름을 부정하고 언어와 목소리 또한 박탈한다. 쿠엔틴은 유색인 청년이 가진 이름이 "적합하지 않았다"(It didn't suit him)(84)고 주장한다. 그는 유색인 청년을 "이름 없는 것"(NO NAME)(80)으로 부른다. 쿠엔틴이 청년들의 '미국식' 이름 부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시민 자격과 권리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혼 없는' 좀비에게 논리적인 언어가 부재하듯이, 유색인 청년들에게 어떠한 언어 사용도 허락되지 않는다. 좀비화의 과정에서 상호적 대화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쿠엔틴만 언어를 사용한다. 쿠엔틴은 희생자들인 '이름 없는 것'에게 공포와 고통을 표현하는 비명소리만 허용한다.

소설의 말미에서 쿠엔틴은 또다시 좀비화를 시도하는데, 좀비가 잘되든 안 되든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려고 면도날로 '성대 절개'를 준비하고 있다(179). 희생자에게 최소한의 저항일 수 있는 '비명'마저 빼앗으려 한다.

> 쿠엔틴은 좀비를 지하실로 옮겨 놓은 뒤 문을 걸어 잠근다. 수술대 위에서 첫 번째 절차를 준비한다. 이번에는 경안 뇌엽 절제술이 아니라 성대의 '절개'다. 그러면 좀비가 잘되든 안 되든 적어도 소리를 내진 않을 테니, 그것만큼은 믿을 만하다. 생물학 도서관에서 가져온 후두 같은 걸 그린 그림을 꺼내야겠어. 면도날을 사용하면 손놀림이 한결 가벼워질 테지. (179)

유색인 청년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좀비화가 수반하는 이름, 언어, 목소리의 박탈은 미국 사회에서 유색인들이 겪는 극단의 익명성과 상실을 의미한다.

쿠엔틴은 좀비노예 만들기에 성공하지 못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얼음 송곳으로 눈이 찔린 유색인 청년들 모두 과다 출혈로 사망한다. 좀비화가 실패할수록 훼손된 시체 역시 늘어난다. 쿠엔

틴은 “나의 좀비가 기쁨일 거라는 예상과 정반대로 짐이 되었다”(149)고 고백한다. 마치 좀비가 내적 손상을 드러내듯이 유색인 청년들을 좀비로 만드는 좀비화는 그들의 육체적 훼손을 강조한다. 육체적 훼손은 미국 사회의 타자로서 유색인 이주자가 조우하는 상실과 박탈을 극단적으로 시각화한다. 좋은 예가 현대판 시위 중 하나인 ‘플래쉬 몹 좀비’(flash-mob zombie)이다. 플래쉬 몹 좀비는 ‘집단적’이고 ‘격식의 틀을 깨뜨리는’ 문화적 사건을 일으키며, 소수자그룹이나 취약층이 거대한 권력체나 시스템에 대항하는 수단이 된다. ‘플래쉬 몹 좀비’가 “대중들의 관심과 공감을 끌어내는”[32] 방식은 좀비의 스펙타클을 통해서이다. 오츠의 텍스트 역시 좀비 스펙타클을 유색인 이주자들이 경험하는 억압, 복종, 대상화를 폭로하는 서사 장치로 전유하고 있다.

4. 나가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좀비』는 오츠의 또 다른 폭력에 관한 글쓰기이다. 다만 이전 문학과 달리 오츠는 ‘좀비’를 이용해 미국 사회의 타자화의 폭력을 다룬다. 오츠는 유색인을 ‘좀비의 표본’으로 보는 백인 화자의 시각을 통해 미국 사회의 인종적 타자로서 유색인이 경험하는 제도적 폭력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화자 쿠엔틴은 여러 유색인 청년을 좀비로 만들기 위해서 납치, 감금하고 마취도 없이 뇌와 눈을 훼손하다 살해하는 ‘좀비화’를 반복한다. 쿠엔틴이 모방하는 뇌엽 절제술은 과거 미국이 허용했던 타인의 정신과 육체를 약탈하는 비윤리적인 외과술로 좀비화의 폭력

32) Smith, Angela M. “Walk This Way: Frankenstein’s Monster, Disability Performance, and Zombie Ambulation.” p. 430.

이 미국 사회 시스템의 산물임을 시사한다. 오츠는 수많은 유색인 청년의 생명을 앗아가는 쿠엔티의 좀비화에서 육체적 훼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사적 보복에 가려져 있는 사회적 폭력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요컨대 『좀비』는 타자의 은유이자 내적 손상을 드러내는 좀비를 통해 미국 사회제도의 타자화의 폭력을 가시화하고 탐색하였다.

현재 좀비는 영화 스크린을 넘어서 문학, 문화, 사회, 경제, 철학 장르에서도 '그들' '타자'를 상징한다. 폭력이 폭력을 생산하는 사회에 대한 통찰을 준다는 미쇼를 참조하면, 타자의 상징인 좀비는 좀비를 소비하는 우리 사회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좀비가 갖는 가장 강렬한 효과는 시각화이다. 나오야는 좀비를 "21세기의 위협을 체화하는 의인화된 존재"(47)로 정의한다. 좀비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형상화하고, 그 위협을 감지하고 인지하게 하는 보조선 역할을 한다(80). 『좀비』 역시 좀비가 미국 사회의 폭력을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서사 장치로 삼고 있다. 요컨대 오츠는 『좀비』에서 미국 사회의 노동자, 소수자로 살아가는 유색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을 좀비(화)의 물질성을 통해 노골적으로 재현함으로 독자들에게 사회 제도적 폭력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Oates, Joyce Carol. *Zombie*. New York: Harper Collins, 1995.

_____. *Where I've Been, and Where I'm Going: Essays, Reviews, and Prose*. Plume Books, 1999.

오츠, 조이스 캐롤. 『좀비: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 공경희 옮김. 파주 : 문학동네, 2012.

2. 논문

최성희. 「폭력의 기원: 르네 지라르의 희생양과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새한영어영문학』 52-3, 2010, 67-85.

Bishop, Kyle. "The Sub-Subaltern Monster: Imperialist Hegemony and the Cinematic Voodoo Zombie." *The Journal of American Culture* 31-2, 2008: 141-152.

Iuliano, Fiorenzo. "Not Dead Enough to be (an) Other. Joyce Carol Oates's Zombies Between History and Fiction." *Otherness: Essays and Studies* 3-2, 2013, 1-26.

Larsen, Lars Bang. "Zombies of Immaterial Labor: The Modern Monster and the Death of Death." 2010. 〈http://www.e-flux.com/journal zombies-of-immaterial-labor-the-modern-monster-and-the-death-of-death/〉.

Marcus, Steven. "American Psycho."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8, 1995, 1-13.

Morii, Miho. "The Truth of the Representation of Jeffrey Dahmer: Joyce *Carol Oates's Zombie*."2009, 93-105.

Parini, Jay. "A Taste of Joyce Carol Oates." *Joyce Carol Oates: Conversations 1970-2006*. Ed. Greg Johnson. Princeton; Ontario Review, 2006, 124-128.

Pitts, April D. "Ideal Objects: The Dehumanization and Consumption of Racial Minorities in Joyce Carol Oates's Zombie." *Bearing Witness: Joyce Carol Oates Studies* 3-1, 2016, 2.

Philogene, Jerry. ""Dead Citizen" and the Abject Nation: Social Death, Haiti, and the Strategic Power of the Image." *Journal of Haitian Studies* 21-1, 2015, 100-126.

Smith, Angela M. "Walk This Way: Frankenstein's Monster, Disability Performance, and Zombie Ambulation." *Literature and Medicine* 36-2, 2018, 412-438.

Stratton, Jon. "Zombie Trouble: Zombie Texts, Bare Life and Displaced People." *European Journal of Cultural Studies* 14-3, 2011, 265-281.

Verran, Joanna, and Xavier Aldana Reyes. "Emerging Infectious Literatures and the Zombie Conditi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4-9,

2018, 1774.

3. 단행본

나오야, 후지타.『좀비 사회학 :현대인은 왜 좀비가 되었는가』. 선정우 옮김. 서울: 요다, 2018.

미쇼, 이브.『폭력과 정치』. 나정원 옮김. 서울: 인간사랑, 1990.

Dayan, Joan. *Haiti, History, and the God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95.

Dendle, Peter. *The Zombie Movie Encyclopedia, Vol. 2: 2000–2010*. McFarland, 2012.

Girard, Rene. *Violence and the Sacred*. Tans. Patrick Gregor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P, 1977.

Wiener, Norbert. *Cybernetics or Control and Communication in the Animal and the Machine*. Cambridge: MIT press, 2019.

Williams, Linda. *Hard Core: Power, Pleasure, and the "Frenzy of the Visible,"* Los Angeles: U of California P, 1986.

(투고일: 2021. 8. 15 심사완료일: 2021. 9. 16 게재확정일: 2021. 9. 24)

강영아
소 속: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주 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자우편: pkya2006@hanmail.net

[Abstract]

Revealing the Violence of Zombi(fication): Joyce Carol Oates's *Zombie*

Kang, Yeong-a

This paper analyzes Oates's *Zombie* in respect of a new radical writing revealing the American institutional violence and otherness on colored people. In the text, the zombies represent a metaphor for those colored immigrants coming to America in 1990s. Desiring the 'zombies' as slaves, the Caucasian narrator Quentin damages the colored youth's eyes and takes the lives of innocent ones while mimicking the 'frontal Leucotomy.' As the Leucotomy was such the notorious tool of incapacitating patients in mental hospitals in U.S. that Quentin's exploiting it for his own zombies highlights the institutional violence on individual lives especially the youth of color. Accompanied by the kidnaps, rapes, tortures and murders, the violent zombification of colored immigrants visualizes the violence of American society towards the racial others. Oates's *Zombi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the zombie text as Yves Michaud claims that the violence represents the very nature of the society which yields that violence. *Zombie* sheds light on the externalization of violence through the physical materiality of the zombie which discloses its internal damage.

Key Words: Joyce Carol Oates, zombies, zombification, institutional violence, externalization of violence, otherness